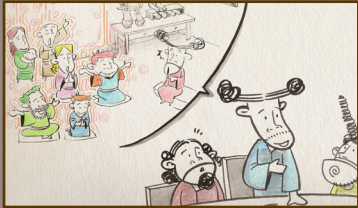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 나레이션**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시 안디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 바나바** 우리가 왔어요!!
- 나레이션** 그런데, 교회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퍼뜨려서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 성도1** 예? 그 엄청 아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 성도2** 바나바목사님도 바울목사님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바울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 거짓교사** 허허~ 말을 참~ 못 알아듣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까... 바울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니 모두 당장! 할례 받으시오! 위대한 모세의 율법을 어길꺼요?
- 성도들** 엉? 갑자기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할례를 받아야 하나...? (웅성웅성. 웅성웅성)
- 나레이션**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도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 바울** 엉 뭐라구요? 그건 아니죠~~
- 나레이션** 그래서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 바울** 당신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소! 당신들은 우리 인간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소!
- 거짓교사**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틀리거나 변할 수 없소! 그러니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말ियो!
- 바울** 그렇지 않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오.
- 나레이션** 바울과 바나바 두 분과 거짓 교사들이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논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소리)
- 바울** 할례 아니지~~
- 거짓교사** 할례 무시하네 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무시하냐 와~
- 바울** 그게 아니라니까요! (싸우는 소리)
- 나레이션** 그래서 결국, 안디옥교회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짓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 바울**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결정을 보자고!



거짓교사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고!

바나바 사도님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과연 사실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교사 우리는 모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할례는 필수요 필수!

나래이션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토론 소리)

나래이션 토론이 끝날 즈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분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정해 주셨습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할례가 아닙니다.

야고보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저 야고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 무서운 멍에를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래이션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편지를 써서 안디옥교회에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은 편지를 들고 무사히 안디옥에 도착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크게 격려를 받았으며,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안디옥교회는 혼란이 멈추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